

무주군, 신규 사업 발굴 박차

18개 부서 58개 발굴... 사업성 검토 2회 추경 예산 반영 후 추진 방침

무주군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다.

신규 사업 발굴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무주발전과 군민행복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 자리정책 강화와 업무혁신에 주안점을 뒀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기획실 등 18개 부서에서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위한 '정원사 육성(1억 원)과 △반디산골 야외공연장 건립(30억 원), △겨울방학 시즌 '화이트 페스티벌' 개최(2억 원), △아이 돌봄 지원(5억 원), △무주군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천여만 원) 등 총 58개 사업(750여 억 원 규모)을 발굴했으며, 13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운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무주군청 문현중 기획실장은 "발굴된 신규 사업들은 민선 7기 군정목표를 현실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



무주군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다.

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올해 필요 예산이 꼭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창의성, 지역연계성 등이 뒷받침된 우수 사업들에 대한포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만 30세 이상 환자 1인당 연 1회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난 14일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된 진안군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인 만성콩팥병과 안과합병증(망막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이다.

이에 따라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들 합병증 가운데 만성콩팥병과 안과합병증 검사비를 환자 1인당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합병증 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진안군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또는 각 면의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들이다.

안과합병증 검사비 지원방법은 등록 환자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또는 진안군 고혈압·당

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 안과인 연세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안군보건소에서 검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만성콩팥병 검사비는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안과합병증과 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을 통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생명사랑실천가게 지정·현판식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장계면 풀마트에서 유봉옥 의료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사랑실천가게 현판식을 갖고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은 업소에서 번개탄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

고 고객이 구매 요청 시 사용목적을 확인 후 번개탄을 판매해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 자살 위험자를 발견할 경우 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군은 매일 정기적으로 생명사랑 실천 가게를 방문해 번개탄 판매 방식

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스티커 부착, 가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유봉옥 의료원장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자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번개탄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번개탄 구매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북 스타트 코리아와 함께 '북 스타트 무주'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생애 첫 책, '북 스타트 무주' 운동 전개

무주형설지공공립도서관, 1~7세 단계별 책 꾸러미 전달

무주군이 북 스타트 코리아와 함께 '북 스타트 무주'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 스타트 무주 운동은 민선 7기 공약인 "함께 하는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1~7세 영유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를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6월까지 총 185가정에 배부하며 하반기에는 7~8월 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령에 따라 '북 스타트(0~18개월_손수건, 턱받이 포함)'와 '북 스타트 플러스(19~35개월_손수건, 퍼즐 <24~28조각>, 크레용, 스케치북 포함)', '북 스타트 보물 상자(36

개월~취학 전_손수건, 퍼즐<54조각>, 크레용, 스케치북 포함' 등 3단계로 배부된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도서관팀 임인숙 팀장은 "2019년 북 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약과 연계한 지식복지서비스로 실천하고 있다"라며 "그림책 꾸러미가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 진흥은 물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책을 통해 육아방법을 공유하는 등 비슷한 연령대의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들이 함께 도서관에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문화재활용사업 추진

장수군은 이달부터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올해 장수군에서 운영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해 역사·문화교육 체험장과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장수가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장수군 지역공동체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장수군민들의 문화적 혜택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A형 간염 주의 당부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최근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월 13일 A형 간염 신고건수는 전국 70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6명 대비 408% 증가했으며, 환자들 중 73%가 30~40대 이라는 낮은 연령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형 간염의 전파경로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대변으로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오염된 손을 통해 직접 전파되어 감염되며, 15~5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식욕감퇴,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권태감 등이 나타난다.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획득, 끓인 물 마시기, 올바른 손씻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지난 14일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병해충 방지 대책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팀, 돌발해충 방제팀 등 3개팀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편성하는 체제적 운영계획을 세웠다.

산림병해충 방지 대책팀은 방제계획 수립 및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팀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갈색날개매미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편성한 돌발해충 방제팀은 지상·항공 방제에 나선다.

특히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는 농업기술센터와 공동방제를 통해 산림은 물론 농림지 등에 발생한 매미충까지 잡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안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벌 쏘임 주의 당부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져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주의를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배란다 등,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군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산행 및 야외활동 시에는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 발견 시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